

전북 누리교사 체불수당 해소 촉구

“4월 이후 처우개선비 받지 못해... 이달까지 해결 안 되면 집단 사직서 제출·연가·결근 투쟁”

전북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이 누리과정 체불된 누리과정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이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임금 체불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으로 매월 지급되던 처우개선비 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까지 1,801명인데 도내 어린이집 누리 교사는 5개월이 지난 8월 말 현재 1,583명으로 무려 218명이 실직하거나 이직했다”고 성토했다.

이는 월급과 매월 지급되던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누리 교사들이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이 사실상 퇴사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교사들은 “특히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책임공방에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이 문제에 직접 나서 이달 안에 지급 중단된 처우개선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의 별도 편성도 요구했다.

누리교사들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0월 1일을 기해 전체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가투쟁이나 집단 결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외국인범죄 5년새 50% 증가 중국인 58% 차지

외국인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 해 평균 외국인 범죄 건수가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만 6915건이었던 외국인 범죄 건수가 2015년 3만8355건으로 최근 5년새 50% 가까이 늘어났다.

외국인 범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만4379건, 2013년 2만 6663건, 2014년 3만684건 등이었다.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만9399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전체 범죄자 14만6996명 가운데 폭력이 4만4135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 관련(20%) ▲강간추행(1.6%) ▲살인(0.2%) 등의 순이었다.

피의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8만5212명(58%)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 1만615명(7.2%), 미국인 9367명(6.4%), 태국인 5441명(3.7%), 필리핀인 2220명(1.5%)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 의원은 우리나라가 교통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교통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만2623건에 머물렀던 교통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5년 2만363건으로 6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교통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만3596건, 2012년 1만5190건, 2013년 1만7590건, 2014년 2만275건 등으로 조사됐다. /뉴스



전북도와 정읍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3층)에서 김생기 시장과 안길만 정읍시 경제건설위원장, 전해성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쓰리에이씨의 정읍시 공장 신설 투자 관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쓰리에이씨, 정읍시에 정수필터 공장 신축

투자협약 체결...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에 40억 투자 내년 가동

필터분야 강소기업인 (주)쓰리에이씨(이하 쓰리에이씨)가 정읍에 제2의 공장을 신축한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3층)에서 김생기 시장과 안길만 정읍시 경제건설위원장, 전해성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쓰리에이씨의 정읍시 공장 신설 투자 관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쓰리에이씨는 정읍시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내 9,567㎡(2,894평) 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해 정수필터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한다.

연내 착공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5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시 재정수입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기업이 지방 투자를 관망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쓰리에이씨가 정읍

투자를 확장한 것은 도와 정읍시가 긴밀한 협조를 구축,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시는 “최초 투자 상담 1개월 만에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며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결실로서 의 큰 의미가 있고 쓰리에이씨를 비롯 최근 연이은 기업들의 입주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정읍인구 15만 회복 현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쓰리에이씨는 지난 2000년 창립,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기술과 제품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는 기업으로 핵심분야는 공기필터와 정수필터이다.

환경 관련 신소재 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해 NOMURA JAPAN CORP과 세계 유수의 활성탄 메이커인 KURARAY CHEMICAL사와 새로운 연구활동 및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신소재와

신기술 개발에 주력,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코웨이 등 국내 굴지의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쓰리에이씨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화성공장에서 삼성전자와 코웨이 등 국내 유수의 업체에 탈취·항균·집진·정수필터 등을 생산·공급하던 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정읍의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 3대 국책연구소, 전북도와 함께 쓰리에이씨가 필터산업분야의 글로벌 친환경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시 그랜드 취업박람회’ 내일 개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2016 군산시 그랜드 취업박람회(이하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내일 개최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군산시와 전북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공동 주최하며, 내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주)효성, 동원페이퍼, 페이퍼코리아, 대왕제지 등 도내 주요기업 및 강소기업 총 38개 업체가 참여해 2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북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전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가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중앙 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 없이 동물위생시험소가 자체적으로 확진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밀검사 의뢰에 따른 총동대응 지연과 장거리 시료 송부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 전파 위험 등이 사전 차단에 효율적인 구제역 초동 방역이 기대된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진단기관 인

증을 위해 작년부터 1억8,000만원을 들여 바이러스 유출 없이 검사 가능한 실험실 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전문검사 팀(5명)을 신설하고 올해는 1억9,000만원을 투자해 최첨단 유전자 진단장비 4종을 새로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허부홍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정밀진단기관 인증 획득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재난형 전염병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신속한 진단과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질병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김일재, 남원화장품산업지원센터 현장행정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소재한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사장 이환주 남원시장, 이하 '센터')와 화장품GMP생산시설에 전북도 관계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이 남원시 출연기관인 센터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화장품생산시설을 둘러보는 현장행정이 펼쳐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26일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의 업무협약 체결, 8월 25일 제너럴바이오(주)의 화장품생산시설과 R&D센터 준공에 이어 8월31일 센터와 (주)하이솔(대표 박이경)이 공동으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남원시에서 구축한 남원 화장품생산시설(원스킨화장품(주) 수탁

운영)이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적격업소로 인증을 받는 등 최박한 여건 속에서 시작한 남원시 화장품산업 육성정책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부지사의 센터 방문에 대해 “센터가 화장품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전북도가 설립허가를 해줌으로써 설립되었고 남원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에도 전북도의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전북도 고위공무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준 것은 남원시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